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

경제혁신 3개년 계획

수출경쟁력 강화대책

2015. 7. 9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 ····· 1

1. 최근 수출동향 ····· 1

2. 수출부진 요인 ····· 3

3.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····· 7

Ⅱ.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····· 9

1. 단기 수출활력 제고 ····· 10

2. 수출품목·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····· 17

3.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····· 23

(별지)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····· 3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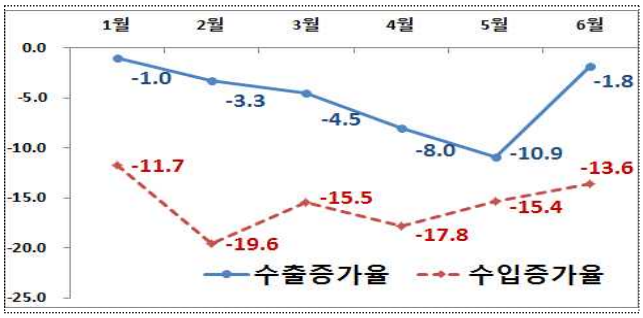
Ⅰ. 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

1 최근 수출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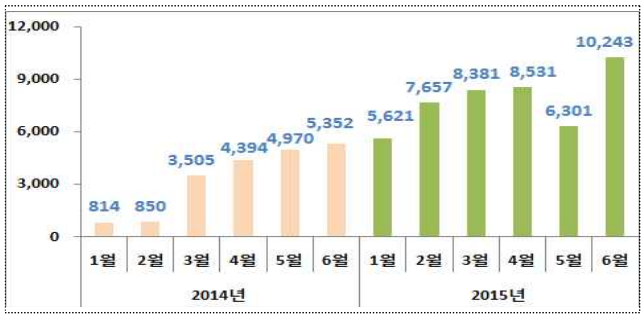
□ ('15.상반기) 수출 2,690억불(전년동기비 △5.0%), 수입 2,223억불(△15.6%), 무역수지 467억불 흑자

○ **월별 수출 및 수입이 6개월 연속 감소세** 기록

< 월별 수출입 증가율(%) >



< 무역수지 흑자규모(백만불) >



□ (수출) 단가는 유가하락 영향으로 크게 하락(1~5월 △10.1%), 물량은 증가세 둔화(1~5월 1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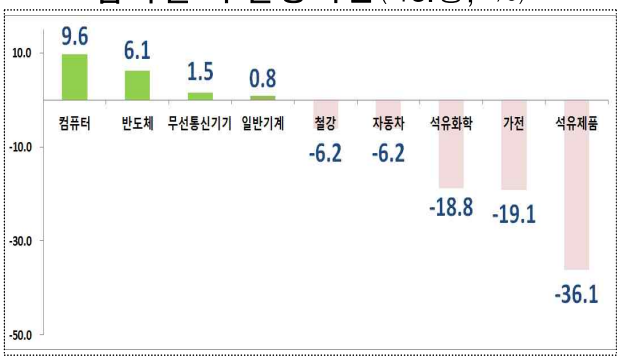
* 수출단가 증감율(%) : ('15.1월) △10.7→(2월) △10.3→(3월) △10.3→(4월) △9.8→(5월) △9.4

* 수출물량 증감율(%) : ('15.1월) 5.8→(2월) △2.2→(3월) 4.3→(4월) 1.1→(5월) △0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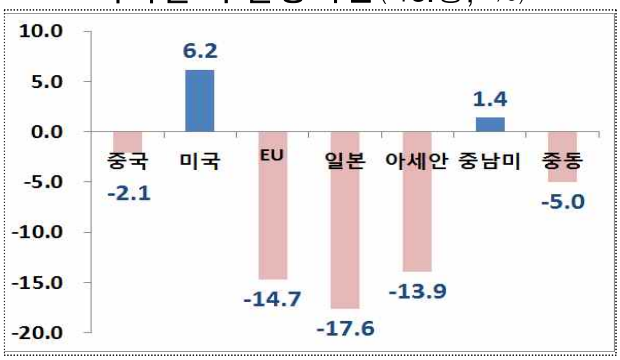
○ **(품목별)** 컴퓨터, 반도체 등 일부 품목 제외시 자동차(對러 수출 급감), 석유화학·석유제품·철강(단가 하락) 등 주요품목 수출 감소

○ **(지역별)** 對美·중남미 수출은 호조, 경기회복 지연 및 환율영향으로 對EU·對日 수출 감소, 석유제품 수출비중이 높은 對ASEAN 수출도 유가하락으로 급감

< 품목별 수출증가율('15.상, %) >



< 지역별 수출증가율('15.상, %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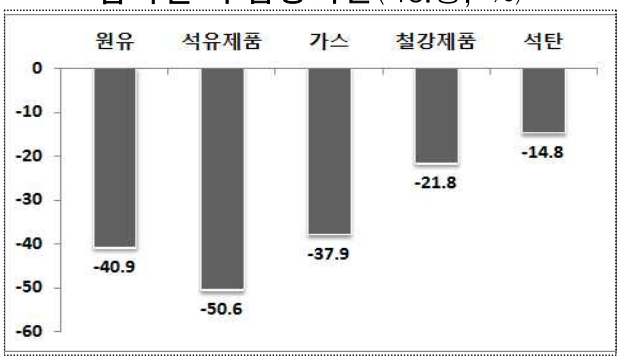


□ **(수입)** 유가하락 등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석유제품·석유화학·철강·가스 등 주요품목의 수입 감소

< 용도별 수입증가율('15.상, %) **>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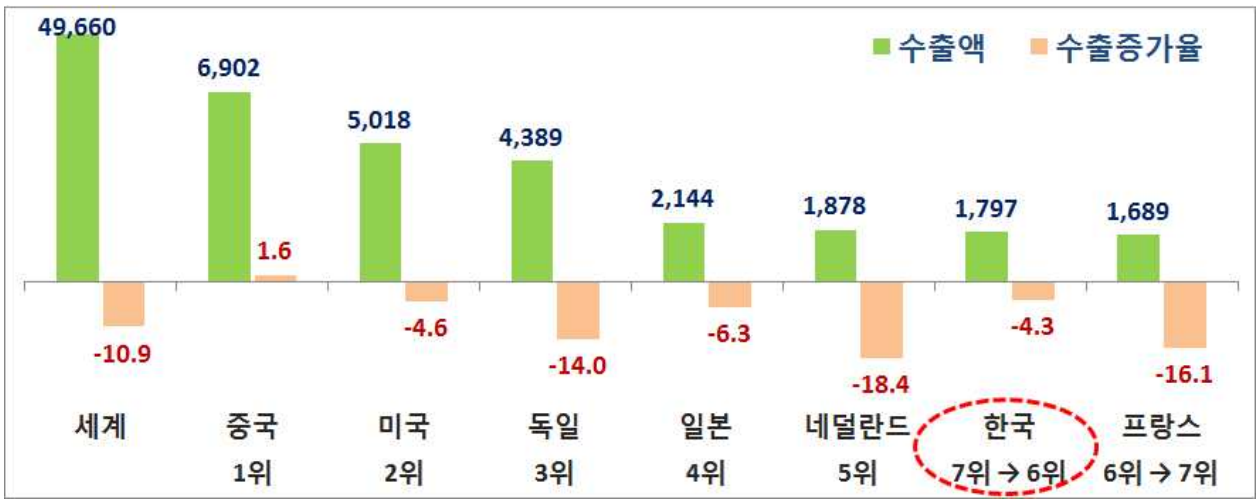
< 품목별 수입증가율('15.상, %) **>**



□ **(주요국 비교)** 세계 수입수요 감소로 **주요국의 수출**(달러기준)은 **우리나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**

○ 전세계 수출규모 순위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**6위로 한 단계 상승**

< 세계 및 주요국 수출증가율('15.1~4월 누계, WTO) **>**



- 다만, 엔·유로화 약세 등 환율 영향으로 **자국통화 기준**으로는 **주요국에 비해 부진**

* 日·EU 기업의 경우,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채산성 개선으로 가격인하, 마케팅 강화 여력 확대

< 주요국 수출 금액 및 증감률 비교('15.1~4월, WTO) **>**

	주요 70개국	한국	중국	미국	독일	일본
달러(억불)	49,660 (△10.9)	1,797 (△4.3)	6,902 (1.6)	5,018 (△4.6)	4,389 (△14.0)	2,144 (△6.3)
자국통화		197.2 (△1.2)	4,298 (3.2)	5,018 (△4.6)	393 (5.8)	25,556 (8.6)

* 자국통화 단위는 한국(조원), 중국(십억위안), 독일(십억유로), 일본(십억엔)

2 수출부진 요인

❖ 최근 수출부진은 **세계경제 둔화, 저유가, 환율** 등 **경기적 요인**과

○ **中성장률 둔화 및 무역구조 변화,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** 등 **구조적 요인이 복합적**으로 작용한 결과

단기 · 경기적 요인

□ **세계경제 및 교역 성장세 둔화**

○ 신흥국 부진 등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저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, 세계교역 성장세도 둔화되는 양상

* '15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변동(%) : (IMF)3.8→3.5, (WB)3.4→2.8 (UN)3.1→2.8
* 세계 주요 70개국 수입액(억달러) : ('14.1~4월)58,070→('15.1~4월)50,260(△13.4%)

○ 특히, **세계 경제성장과 교역증가**간 **상관관계*가 약화**되어 향후 경제가 회복되어도 **수출 회복이 기대보다 지연**될 가능성

* 세계교역증가율/세계경제성장률 : ('90～'11) 2:1 → ('12～'14) 1:1

□ **저유가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**

○ **(수출단가 하락)** 우리 수출의 약 17%를 차지하는 **석유제품·석유화학 제품 수출단가 급락***에 따라 '15.상반기 약 139억불 수출 감소**

* 석유제품수출단가($/B) : ('14.6월)117.5 →('15.6월)74.0(전년대비 △37.0%)
  석유화학수출단가($/톤) : ('14.6월)1,545 →('15.6월)1,270(전년대비 △17.8%)

** 석유화학·석유제품 제외시 우리나라 '15.상반기 수출증가율은 △0.1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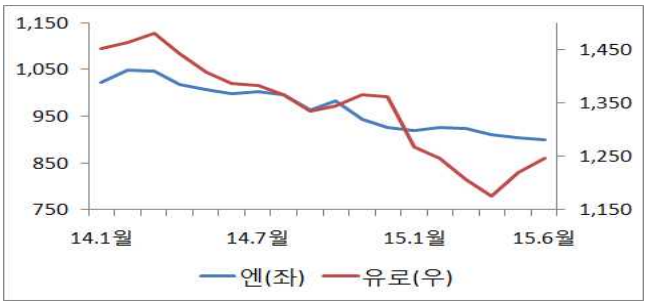
○ **(對러시아·ASEAN 수출 감소)** 저유가에 따른 경기둔화(러시아), 석유제품·석유화학에 대한 높은 수출비중*(ASEAN)이 부정적으로 작용**

* 총수출 중 석유제품·석유화학 비중('14년, %) : (전세계)17.3 〈 (ASEAN)28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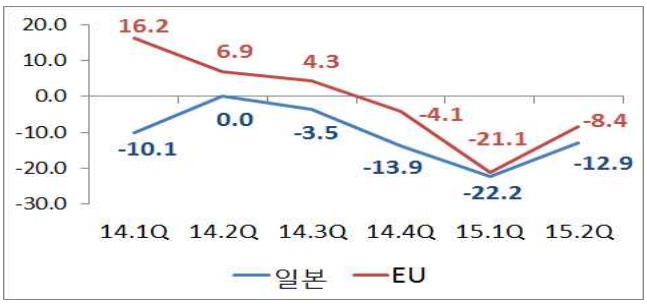
** 對러시아 수출금액 및 증감률(백만불,%) : ('14.상)6,049→('15.상)1,823(△69.9)
  對ASEAN 수출금액 및 증감률(백만불,%) : ('14.상)44,328→('15.상)38,158(△13.9)

□ 엔·유로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

< 엔·유로 對원화 환율 추이(한은) >



<對 日·EU 수출증감율(%, 무역협회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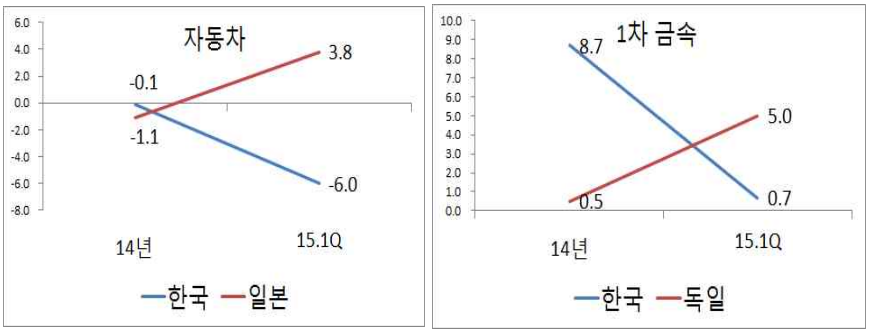
○ 엔·유로 약세로 **對日·EU 수출이 최근 큰 폭으로 감소**하였고 日·EU와 수출경합도가 큰 **자동차, 1차 금속** 중심으로 수출 감소

* (예) 자동차 업계 수익성 비교 ('14.1/4→'15.1/4, 영업이익률) : 현대 8.7% → 7.6%, 기아 6.4% → 4.6% / 도요타 8.6% → 8.9% / BMW 11.5%→12.1%

<韓·日·獨 수출물량 증가율(%)>



<주요제품 對세계 수출물량 증가율 비교(%)>



(한국은행, 일본 재무성, 독일 연방통계청, IMF 통계)

구조적 요인

□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무역구조 변화

○ **(중국경제 성장 둔화)** 매년 10% 이상 고속성장에서 '12년 이후 **7~8% 성장하는 경제**로 전환(신창타이, New normal)

* 중국 경제성장률(%) : ('05)11.3 → ('10)10.4 → ('14)7.4 → ('15.1Q)7.0

○ **(中 성장전략 변화) 中 가공무역 억제*, 산업 자급률 제고** 등 수입구조 변화에 따라 중간재 수출비중 높은 우리의 對中 수출에 크게 영향**

* 中 가공무역 금지품목 수 : ('04)341 → ('09)1,789 → ('14)1,871

** 對中 수출의 중간재 비중(%) : ('05)82.0 → ('14)73.2

對中 수출증가율(%): ('10)34.8→('11)14.8→('12)0.1→('13)8.6→('14) △0.4→('15.상) △2.1

○ **(글로벌 밸류체인 변화)** 해외 생산거점이 중국에서 베트남 등 ASEAN 국가로의 이동 등 글로벌 밸류체인(GVC) 변화도 對中 수출에 영향

* 우리나라 對中·베트남 해외투자('14, 백만불, %) : (中)3,311(△37.4) (베)1,558(37.8)

□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

○ 후발경쟁국 대규모 투자 등으로 i) 경쟁우위 품목 **시장지배력 약화** ii) **글로벌 공급과잉** iii) 경쟁국 대비 **기술우위 축소** 발생

* (예시) 중국 : 10.5세대 LCD 생산라인 400억위안 투자계획 발표 ('15.4)
55인치 AMOLED 양산계획 발표 ('14.10)

- 주력수출 품목의 시장점유율 축소 및 韓-中간 수출경합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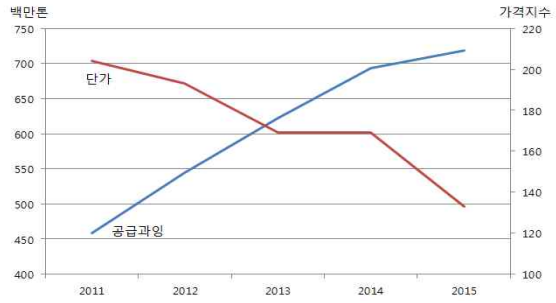
* 한·중 수출경합도 추이('12→'13, 무역협회) : (전체) 0.366→0.377
(기계류) 0.453→0.477 (전자제품) 0.553→0.567 (철강제품) 0.433→0.441

< 한·중 주력품목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비교 >

구분(%)		석유제품	철강	기계	섬유제품
한국	'12년	5.85	6.53	2.87	4.37
	'14년	5.38	6.15	2.86	4.07
중국	'12년	2.28	11.63	13.86	34.83
	'14년	2.58	12.62	14.38	35.9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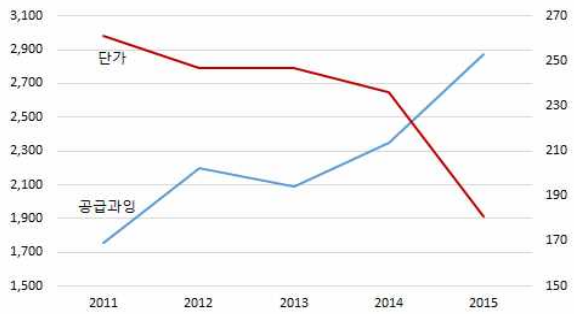
- 후발경쟁국 **대규모 투자로 과잉공급(Overcapacity) 확대 및 수익성 악화**

< 철강 과잉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 >



* CRU SPI(단가), WSA Economic(공급과잉)

< 석유화학 과잉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 >



* 일본 경제산업성 (에틸렌 기준)

- 우리나라도 미국 등 **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여**가고 있으나, **후발경쟁국**은 **더 빠른 속도로 우리와의 기술격차를 축소** 중

< 주요국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연수(美=100, KEIT) **>**

	한국		중국	
	기술수준	기술격차 연수	기술수준	기술격차 연수
'12년	77.8	4.7	67.0	6.6
'14년	78.4	4.4	69.7	5.8

○ **수출품목·수출기업 등 전반적 수출구조 역동성 둔화**

- **범용제품** 위주의 **수출구조가 장기화**되어, 경쟁국 추격이 급속한 철강, 석유화학 등 분야의 **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시급**

- **중간재 위주 수출구조** 하에서 패션·식품 등 **소비재 수출부진***

* 총수출中 소비재 비중(%) : ('10)16.2 ('11)15.3 ('12)15.0 ('13)15.0 ('14)15.5
총수출中 중간재 비중(%) : ('10)59.2 ('11)61.0 ('12)60.7 ('13)61.3 ('14)61.7

- 한편, **중소·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확대**되고는 있으나, **여전히 대기업 위주의** 수출구조가 지속

* 중소·중견기업 수출비중(%) : ('10)34.5 → ('11)33.0 → ('12)32.1 → ('13)32.8 → ('14)33.8

□ **우리기업의 글로벌 생산 확대**

○ 주력 수출품목의 **생산공장 해외이전은 현지시장 접근,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**이 있으나, **우리 수출에 직접 영향**

- 해외공장 건설시 ①**국내 중간재·부품 수출이 확대**되는 효과가 있으나, ②**현지조달 증가시에는 국내 생산·수출에 부정적 효과**

< 주요업종 해외생산 및 국내 원부자재 조달 비중('15, 업종별협회) **>**

구분	가전	디스플레이	자동차	섬유
해외생산비중(%)	77.6	57.3	40.2	26.2
원부자재 국내조달비중(%)	15	25	30	30

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

□ 최근 우리 수출은 **세계경기 둔화, 저유가, 엔·유로화 약세** 등 경기적 요인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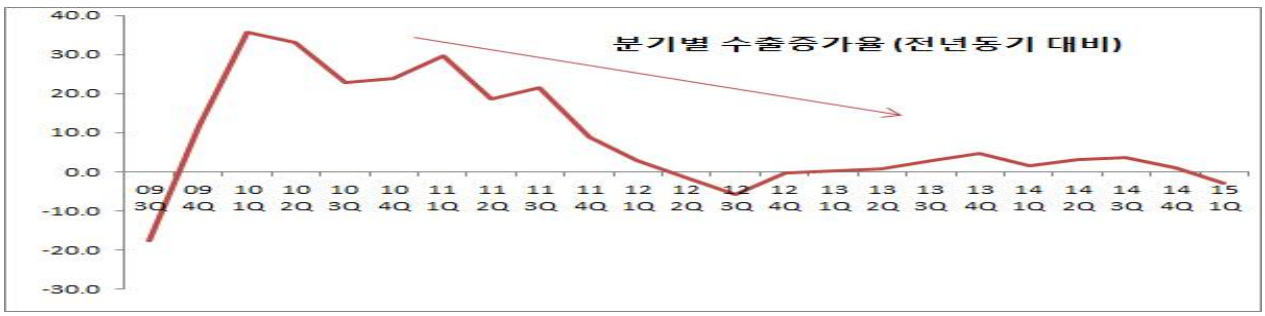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세계 수입 감소 등으로 **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수출이 동반감소**하고 있는 상황에서 **비교적 선전한 측면**도 있음

□ 그러나 최근 수출부진의 특징은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,

○ **對中 무역구조 변화,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** 등 **대내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**한 결과

□ **구조적 수출둔화** 요인에 대한 **면밀한 정책대응 부재시, '12년 이후 지속된 수출둔화 추세가 자칫 장기화**될 가능성

⇒ **수출부진세를 반전**시키기 위한 民官 **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**



< 주요 수출 부진요인 및 중점 대응방향 >

	주요 부진요인		중점 대응방향
경기적 요인	▪ 엔·유로화 약세로 가격경쟁력 약화	▶	▪ 엔·유로화 약세 피해기업 지원강화 ▪ 중소중견 수출금융 및 마케팅 지원
구조적 요인	▪ 후발경쟁국의 투자 등 추격심화 ▪ 수출품목 다각화 미흡 ▪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	▶	▪ 선제적 투자 통한 경쟁력 확보 ▪ 주력업종내 차세대 유망품목 육성 ▪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
	▪ 對中 무역구조변화 ▪ 우리기업의 글로벌 생산확대(GVC)	▶	▪ 소비재 품목 수출 강화 ▪ 해외생산기지 활용한 수출 확대

참고 **최근 수출기업 현장애로 조사결과**

◇ **업종별 수출전망과 정책과제, 엔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전망과 대응과제 조사**(대한상의, 3~5월), 주요 **협단체 설문**(산업부·무역협회, 5~6월) 결과 종합

□ **(수출부진 원인)** 세계경기둔화, 환율 등 **대외 경기적 요인이 주된 요인**(61.4%)이나, **대내외 구조적 요인*도 상당부분 기여(35.2%)**

< 주요업종별 대내외 구조적 요인 >

- (철강) 중국업체 저가 공세에 따른 글로벌 공급과잉, 제3시장에서 중국 대비 경쟁력 열위
- (가전·디스플레이) 해외생산 확대, 중국내 LCD패널 생산 확대

□ **(수출현장 애로) 엔·유로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** 外에 **해외시장 정보 및 수출금융 지원 부족, 비가격경쟁력 약화** 등 호소

* 응답비율 : 가격경쟁력 약화(47%), 환율·원자재가격 불안(37%), 해외시장 정보 부족(29%), 수출금융 지원 부족(21%),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 약화(11%) 順

< 가격경쟁력 약화 주요사례 >

- (선박용엔진부품 일본 수출업체) 엔저로 1kg당 2달러에서 현재 1.3달러까지 가격하락 요구에 직면, 평소 30억원 수출이 14억원으로 감소
- (금속제품 유럽 수출업체) 중국산 저가제품의 시장유입으로 어려움에 직면, 인건비·자재비 등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가격경쟁에서 열세

□ **(정책 건의사항)** 엔저 피해 등 지원, 기술개발 지원 강화, 수출금융 지원 확대,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등 **전방위적 수출지원책을 요구**

* 응답비율 : 환율·원자재가격 안정(45%), 기술개발 지원 강화(34%), 수출금융 지원 강화(21%),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(20%), FTA 확대(19%)

< 주요업종별 정책 건의사항 주요내용 >

- (자동차) 엔저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극복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
- (반도체·가전·일반기계)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
- (섬유) 해외마케팅 및 무역금융 지원 확대, 산업용 섬유 생산기반 구축

Ⅱ. 수출경쟁력 강화대책

□ 목표

○ 단기적으로 수출현장의 활력을 제고하여 회복의 모멘텀 마련

○ 수출구조 다각화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중장기 수출동력 확보

□ 추진방향 및 과제 (3대 방향, 9대 과제)

1. 단기 수출활력 제고	① 무역금융 등 수출애로 해소 ②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
2. 수출품목·시장의 전략적 다각화	① 유망 소비재의 수출상품화 ② 해외진출과 연계한 수출품목 고도화 ③ 수출지역 다변화 추진
3.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	① 선제적 투자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②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 ③ 주력산업의 수출품목 고도화 ④ 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의 확산

□ 민간과 정부의 역할

○ **민간**은 **선제적 투자, 자발적 사업재편, 생산성 혁신노력을 강화**하고,

○ **정부**는 투자애로 해소, 원천기술개발 지원, 기업간 자율적 협업 및 사업재편 촉진, 해외시장 정보제공 등 **시장친화적 대책 시행**

1. 단기 수출활력 제고

1 무역금융 등 수출애로 해소

❖ 수출기업 **자금조달 애로해소를** 위해 **16.2조원 무역금융** 공급 ('15.下~'16)

○ **국내 금융기관 직접 공급** (9.6조원) **+ 해외 금융기관 연계 공급** (60억불, 6.6조원)

□ **엔·유로화 약세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: 6,500억원**

○ **(환율 피해기업 지원*) 지원규모·대상 확대**(1,500억원 신규배정, 유로화 약세 피해기업 포함) 및 **대출금리 인하, 기간연장**(△0.3%p, '15.6→12)

* 수출부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및 상환애로시 기존 대출한도 유지(1년간) 등

○ **(무역보험)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*** 기한을 연장('15.6→'15.12)하고 **유로화도 특별할인(50%) 지원대상에 추가**(무보)

* 중소·중견기업 특별할인 20%, 엔화의 경우 50% 특별할인(유로화도 추가)

○ **(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소)** 자동차, 전기전자, 철강 등 **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**(수은, 5,000억원)

□ **해외투자 활성화***를 통해 외환수급 불균형을 완화하여 **외환시장 불안정성 등 기업애로를 완화**

* 해외주식형펀드 세제지원, 외평기금을 활용한 해외 M&A 대출지원, KIC를 활용한 공공기관 해외투자 활성화 등 (旣발표, 6.29)

□ **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확대 : 8.9조원**

○ **(서비스 수출확대) 서비스 업종별** 대표기업과 **수출사업 모델을 공동개발**하고 자금 지원*하는 **서비스 수출금융을 5조원 증액****(수은, ~'16)

* 사업발굴 단계부터 금융지원, 글로벌 제약단지 조성시 투자자금 지원, 제조업과 금융기관 동반진출 지원, 한국형 병원의 해외진출 지원 등

○ **(수출팩토링) 중소·중견협력사 동반 해외진출**을 위해 협력업체 및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**수출팩토링 지원 확대**(수은, 5,000억원)

○ **(무역보험)** 한도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는 **수출 급성장 기업 300여 개사, 수출초보기업 1,600개사 대상 총 9천억원 규모 보험 지원**

○ **(해외건설·플랜트 지원)** 수은·무보가 공공기관과 **고수익 해외건설·플랜트 사업 공동발굴** 및 **2.5조원 규모 정책금융 확대** 공급 (수은 1조원, 무보 1.5조원)

* 재무여건 열악한 중소·중견기업에게 원활한 보증제공을 위해 공동보증제도 도입 추진(공동보증건에 대한 면책부여 및 정책금융기관간 협약 체결, '15.7)

○ **(무역금융 접근성 제고)** 수출금융 규모확대와 더불어 자금이 **중소·중견 수출기업에 원활히 공급**되도록 **금융기관 독려***(금융위, 산업부)

* 무보, 수은 등의 보증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수출금융 심사절차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확보에 애로 발생 (수출업계 건의사항)

□ **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수출여력 확충 : 60억불(6.6조원)**

○ **(전대금융) 정상외교와 FTA 체결**로 수출 확대가 용이한 **중남미·베트남** 등 **신흥시장에 대한 전대금융*** **확대**('15, 20억불 신규확대)

*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 대상 대출을 위해 외국 현지은행에 자금 공급 (브라질 등 중남미 9억불, 동남아 6억불, 러시아·CIS 4억불, 중동 1억불 등)

○ **(보증약정)**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**주요 글로벌 은행**에 **보증한도 사전제공** 약정* 체결(최대 40억불 추가)

* 중남미, 아프리카, 유럽 금융기관과 旣체결('15.5월, 60억불) → 아태지역 등 추가 예정

2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

가.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

❖ 창조경제혁신센터를 **중소·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거점**으로 구축

○ 지역기업의 '**제품발굴부터 판로확보**'까지 해외진출 전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센터중심으로 **수출지원기관 역량 결집**

□ 혁신센터 중심으로 **지역중소기업 '유망 수출제품·브랜드 발굴→육성→대기업 유통망을 활용한 해외진출'까지 체계적으로 지원**

* 대구센터(삼성) : C-lab을 통해 창업기업 육성, 삼성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
전북센터(효성) : 농생명 유망기업 12개를 선정, 효성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판로개척 지원
충북센터(LG) : LG 생활건강과 10개 화장품기업이 공동브랜드 개발 및 중국시장 진출지원
경기센터(KT) : 게임, IoT 분야 유망기업 발굴하고, 글로벌 진출을 지원

○ (**내수기업 수출기업화**) 혁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**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**을 시행하고, 해외진출 밀착지원 ('16.상~, 100개)

○ (**K-글로벌 프로젝트**) 혁신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, 해외진출에 필요한 **전문컨설팅(법률, 회계 등)** 및 **기업설명회**(IR) 기회 제공

○ (**전자상거래 지원**) 혁신센터를 통해 **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 가이드**를 배포하고, 센터별로 **전자상거래 전문가가 기업 멘토링**

□ **혁신센터 중심으로 국내외 해외진출 지원기관 네트워크화**

국내 기관

○ 혁신센터내 **수출지원기관 기능을 결집**한 **Trade Zone 설치·확대**

* 충남센터 무역존에서 무역협회·코트라 등 지원기능을 통합제공중

○ 혁신센터, 창조경제추진단, KOTRA 등이 참여하는 '**해외진출 지원협의회**'를 **구성**하여, 체계적으로 지역기업 글로벌 진출지원

○ **경기혁신센터를 중심으로, 17개 혁신센터의 유망기업 정보를 DB화** 하여, 해외 투자자, 수요기업 등과 연계지원

해외 기관

○ 혁신센터 중심으로 공공기관 해외인프라 및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연계

* 공공기관 인프라 : KIC(글로벌 혁신센터), 해외IT지원센터, 수출인큐베이터 등

나.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및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무역방식 활성화

□ 중소·중견기업 바이어 발굴 및 해외 마케팅 지원

○ **해외전시회* 및 KOTRA 해외지사화 사업** 확충**

* 해외전시회 : ('15년) 320회, 5,400개사 → ('16년) 370회, 6,400개사

** 해외지사화 : ('15년) 2,600개사 → ('16년) 3,000개사

○ 현지언어·시장동향에 밝은 **해외동포무역인-수출초보기업*간 매칭**

*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대상기업(2,400개사) 중심 매칭 추진('16.上)

○ **TV홈쇼핑사의 해외플랫폼**(CJ오쇼핑-멕시코, GS홈쇼핑-중국 등 하반기 진출 예정) 등 **대기업 해외 유통망을 활용**한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

* 우수 중소기업 물품 선정 후 홈쇼핑·온라인 쇼핑몰로 판매 지원('15년 60억)

□ 전자상거래 수출확대

○ **대대적 '온라인 특별할인전' 실시** (2회: 8월, 11월)

* 오픈마켓(11번가, Kmall24 등), 백화점·면세점 온라인 몰(롯데인터넷면세점 등), 해외쇼핑몰 한국관(Tmall 등) 등 /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관으로 추진

○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**T-mall**(알리바바 B2C)에 개설된 **한국관을 확충**(60→100개社)하여 중국 내수시장으로 수출 촉진

○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B2C **공동물류센터 신규운영**('15.下)

○ 중장기적으로 **한·중·일 간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추진**(기재부)

* 역내 디지털제품·서비스의 통관, 인증, 결제서비스 등의 단일시장화

○ 「**온라인 수출지원팀**(산업부)」 신설('15.下)하여,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

□ **해외공공조달시장, 정부간무역**(G2G)**, 절충교역** 등 다양한 수출방식 활용

○ **(해외공공조달시장)** 벤더등록, 현지 마케팅, 금융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**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**('15.7월, 220개사 선정예정)

- 조달경험이 있는 교포기업을 활용하여 현지조달 바이어와 매칭 지원

* 미국, 일본 등 30개 기업 발굴('15.4Q), 바이어 매칭 상담회 확대(연 4회→6회)

○ **(정부간 무역) 방산물자** 이외에도, 전자통관, 기상예보시스템 등 **행정서비스**에 대한 수요 발굴(공관, 무역관 협조)

- G2G활용 관심기업과 협의체 구성,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체계* 구축

* 캐나다 CCC(Canada Commercial Corporation)과 MOU 추진

○ **(절충교역*)** 대상품목을 군수품 외 **항공·전자** 등 첨단분야로 확대하고, 협상을 통해 **중소기업 참여비율**을 단계적으로 확대(現 30%)

* 외국으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공급자에게 기술이전 및 부품 역수출, 물품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('14년 42억불)

다. FTA 활용제고를 위한 기업맞춤형 정보제공

❖ **FTA 정보, 비관세 장벽, 통관 및 원산지, 중국 지역별 진출정보** 등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눈높이에 맞는 **맞춤형 정보제공 강화**

⇒ **'18년까지 FTA 수출활용률을 72%로 제고** ('14년 59%)

□ **FTA 미활용 중소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및 컨설팅 제공**

○ 미활용 중소기업 5,000개사 대상으로 활용 정보 및 컨설팅 제공('15.5월~)

* 산업부(FTA종합지원센터, 지역 FTA센터 17개), 관세청(전국 30대 세관), 중기청(중진공) 활용

○ **창조경제혁신센터**와 **10개 산업단지**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 제공

* '찾아가는 FTA 서비스'와 'YES FTA센터' 운영('15.3월)

□ **비관세 장벽 정보제공 강화 및 애로 해소 지원**

○ 단순 애로사례 중심의 정보제공에서 **대처방안, 성공사례 공유*로 정보제공을 고도화**하고, 주요국 무역장벽에 대한 심층정보 제공**

* 현지 설명회/간담회 개최와 국내 FTA포털·비관세장벽 포털 정보제공 연계('15.下)
** 미국, EU, 중국, 베트남 등 주요국의 수출·투자 규제정보 발간('15.12월)

○ 기술표준분석, 애로해소 등 지원을 위한 **TBT 지원센터 설치**('16, 국표원), 신흥시장으로 현지대응반* 확대 등 **현지 신속대응체계** 구축(KOTRA)

* 공관-무역관(간사)-진출기업·기관을 네트워킹, 현지 정부와 해결책 논의
('15년 中 베이징, 상하이, 칭다오, 청두, 다롄, 광저우, 시안 7개 → '16년 ASEAN)

□ **새로운 시장에 대한 통합무역정보 제공 및 지원인프라 확충**

○ **통합무역정보서비스**(tradeNAVI.or.kr) **대상국가 및 연계기관 확대**

* 대상국가 : ('15년) 49개국 → ('16년) 63개국(페루, 남아공 등 14개국 추가)
* 연계기관 : ('15년) 34개 → ('16년) 44개(증권사, 연구소 등 10개기관 추가)

-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**모바일 웹 서비스 제공**('15.12월)

○ **무역관련 해외사무소를 KBP*에 집적**하고 **KOTRA 지방지원단 확대** (5개→12개)로 중소기업 대상 정보제공 및 지원 접점 확대

* KBP (Korea Business Plaza) : ('15년) 10개 → ('17년) 20개

라. 수출역량이 있는 유턴 희망기업의 국내 정착 지원

❖ **한·중, 한·EU FTA관세효과 활용 등**을 위해 복귀를 희망하는 우리 **제조기업 유턴을 촉진**하고 **적극적 입지지**원 등을 통해 **수출특화기업**으로 본격 육성

□ 일정 요건*을 충족하는 **유턴기업에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부여**하여, 국내 **조기 정착** 및 **수출경쟁력 강화**를 지원

* 해외에서의 수출실적(매출액의 50%이상)을 인정하여 입주자격 부여

□ **창조경제혁신센터**를 활용하여, **유통 대기업과 연계한 마케팅, 판로 개척** 등을 지원

* (예시) 부산(신발) 창조경제혁신센터: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선정하여, 롯데 계열사 유통채널 매칭, 백화점・창의상품 전용매장 입점 등 지원

□ 한중, 한EU 등 **FTA 수혜업종을 중심**으로 **관세효과 활용**을 위해 복귀를 희망하는 **수출기업 집중 발굴 및 DB구축**

* (예시) 한중(기능성 의류:14~17.5%→0), 한EU(전자부품, 의료기기:8~14%→0%)

○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연계하여 **유턴 정책설명회 및 유턴 수요조사** 추진, **베트남 등** 전략지역에서 유턴 상담회 등 개최('15.하)

○ 유턴 정책홍보 동영상, 유턴 가이드북 등 **다양한 컨텐츠**를 개발하여 배포하고, 해외교민지 등에 정책광고 게재 추진

□ 효율적인 원스톱 지원을 위해, **해외 현지 지원기반을 확충**하고, **국내 지원기관-지자체간 협업 체계**를 강화

○ **(해외)** 현지에서 해외사업장 청산, 유턴 컨설팅 등을 전담 지원하는 **'유턴 데스크'**를 확충(6개소→10개소, '15.9월)

* (現) 북경, 상해, 청도, 광주, 선양, LA → (신설) 하노이, 호치민, 오사카, 다롄

○ **(국내)** KOTRA, 산단공 등 지원기관 및 지자체 단위로 **유턴 PM을 지정**하여, **1:1 맞춤형 애로해소 지원**을 강화

2. 수출품목 · 시장의 전략적 다각화

1 유망 소비재의 수출상품화

❖ 그간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가 지속되며, **소비재 수출비중은 감소**하는 등 '**수출품목 구조 불균형**' 확대

* 중간재 수출비중(%) : ('04) 46.6 → ('09) 56.3 → ('14) 61.7
소비재 수출비중(%, 자동차제외시) : ('04) 29.1(18.6) → ('09) 16.2(9.2) → ('14) 15.4(6.9)

○ 최근 **중국 내수시장 확대, 韓流 확산** 등으로 **화장품·식료품** 등 우리 **소비재 수출 기회**가 점차 확대

* 화장품 수출증가율('14년) : 53.5%, 식료품 수출증가율('14년) : 3.3%

가. 유망 소비재 발굴 및 한류마케팅

□ **민간 유통사**(롯데, 현대, CJ)와 **공동으로, 글로벌 생활명품***(생활용품), **지역특화 상품****(농수산), **K-Character**(문화컨텐츠) 등 **다양한 유망소비재 발굴**

* 글로벌생활명품 : '14년 10개, '15년 30개, 총40개社 旣선정 → '17년 100개까지 확대
** 식품은 '명인명촌(현대백화점)', 생활용품은 'REAL(올리브영)'의 브랜드와 유통채널 활용

< 소비재 유망품목 (예시) >

분야	유망품목	강점
생활용품	주방용품, 유아용품, 위생용품 등	한류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 소비재 노출 확대
소형가전	진공청소기, 개인용PC 등	
뷰티·패션	화장품, 모발제품, 아웃도어의류	
농수산식품	유제품 및 프리미엄 과자·음료	한국산 농수산 식품에 대한 안전한 이미지
	할랄식품(생우유, 조미김, 스낵류 등)	
문화콘텐츠	모바일용 게임 및 관련 캐릭터 상품	국산 게임, 방송콘텐츠 등의 독창성 및 범용성
	방송콘텐츠, 교육콘텐츠, 스마트러닝 플랫폼 등	

□ 소비재 품목별 특성에 맞게 **글로벌 유통망 진출**(패션·뷰티), **현지 판매망 구축**(농수산 식품), **한류스타 마케팅**(문화콘텐츠) 등 맞춤형 지원

○ **(패션·뷰티)** 유망 화장품기업 **글로벌 유통망 진출지원 확대*** 및 **알리바바** B2B 쇼핑몰 **한국패션관 신설**('15.7월), **수출상담회**** 개최

* 카탈로그 제작, 구매담당자 매칭 등 지원('15년 55개社 → '16년 150개社)

** 코리아 브랜드 한류상품 박람회(8월, 상하이), K-goods Fair(하반기, 中선전·텐진) 등

○ **(농수산식품)** 중동·아세안 등 **할랄식품 시장 공략 강화**

*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및 현지 공동물류센터 확대, 할랄수산식품 기술지원센터

○ **(문화콘텐츠) 한중 문화산업발전펀드**(정부출자 400억원)를 통한 **본격투자**('16.1)

- 문화콘텐츠 분야 **1:1 상담회* 및 한류스타 마케팅** 추진**

* 차이나조이('16) 참가, K-Character Plaza 및 방송콘텐츠 중국진출 로드쇼 신설('16)

** 중소기업과 매칭상담회(年 6회), 온라인플랫폼 구축('16.2월), 공연연계 마케팅(年 5회)

나. 한국산 정품 인증 및 해외인증 획득 애로 지원

□ **한국산 정품 구매를 원하는** 한류지역 **소비자 특성을 감안하여, 「정품인증」 시범사업** 추진('15.下, 무협)

○ 스마트폰 앱·QR코드 등을 활용, 정품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보급

* 무역협회의 K+ 인증상품에 시범실시('15.下) 후 민간 브랜드제품으로 추진

□ **해외인증획득 비용지원을 확대**하고, 특히 중국진출 화장품은 인증 및 규제해소 등 **인증획득 全과정 지원**

*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: ('15) 1,600개社 → ('16) 2,900개社

** 중국인증 집중지원 : ('15) 100개社 → ('16) 400개社

○ 인니(MUI), 싱가포르(MUIS) 등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정을 추진하고 할랄인증 수요에 대비하여 **인증비용 지원**

○ **해외인증 전문컨설팅 업체와 우리기업간 매칭**을 통해 中企의 **인증 획득 기간 단축**(무협)

* 국가별·품목별 적정 컨설팅 업체 발굴을 위한 시장정보 조사 및 평가('15.7월~)

다. 중국 소비재시장 개척노력 강화

□ 해외무역관을 통해 **중국 주요 省·市별 시장·무역정보**를 체계적 수집

* 해외무역관이 설치된 17개 省·市를 중심으로 정보 수집 활동 전개

○ 지역별 산업·시장 여건 및 정책·제도 등을 세분화하여 분석('15.下)하고, 기업수요에 기반하여 **'유망분야 및 지역 전문정보'** 지속 생산

* 품목별 유망지역·바이어, 유통 등 진출전략('15. 9월), 동북3성 진출정보('15.下) 등

< 주요 省·市별 생산정보 예시 >

- **(省개요)** 주요 경제지표, 경제동향 및 전망, 수출입동향, 한국과 교역현황
- **(산업·시장)** 산업현황, 특화산업, 수출 유망품목, 소비시장 특성, 주요 바이어 및 유통망정보, 통관절차 및 운송,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
- **(정책·제도)** 지방정부 발표정책 및 법령, 수입규제제도, 조세제도, 관세 제도, 주요 인증제도, 지식재산권
- **(프로젝트)** 유망 프로젝트 내용, 입찰시기 등 정보, 주요 발주처 정보
- **(수출지원사업)** 주요 전시회 및 상담회 등 마케팅사업 일정

□ **중국 지역정보 제공 및 활용도 제고**

○ **(온라인) 통합무역정보서비스(tradeNAVI)***에 **'중국관'**을 **별도 설치**하여 중국 지역에 특화된 시장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

* 관세율, 인증, 바이어·구매오퍼 등 34개 수출지원기관의 무역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

- 중국관 내 주요 省·市별 웹페이지를 마련하여 세분화한 진출 정보 제공 및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수시 업데이트

○ **(모바일웹) 통합무역정보서비스**(tradeNAVI) **모바일 웹을 개발**하여 중국 무역 및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('15. 下)

○ **(오프라인)** 국내 **China Desk*** 및 중국 4대 거점(베이징, 상하이, 칭다오, 청두)의 **FTA 활용 지원센터**를 통해 FTA 활용 정보 및 컨설팅 제공

* 양허내용 및 관세율, 비관세장벽 등 FTA 정보제공 및 FTA활용 시장진출 컨설팅 제공

□ **중국內 콜드체인**(냉동·냉장 유통망)과 **현지 판매망*****을 구축**하고 중국 내륙에 KOREA TOWER를 조성하여 문화, 음식, 헬스케어 등 비즈니스 창출

* 칭다오 물류기지('15.6월 개소)와 중국 內 8개 공동물류센터를 연계('16)

** 中 온라인 몰('15, 4개) 및 백화점에 '한국 농식품 판매관'(북경, 상해, 광저우 등) 확대,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구축·운영('14.6월 상해, '15.6월 청도)

2 해외진출과 연계한 수출품목 고도화

가.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산업화

□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 인프라 강화

○ **(선단형 수출 지원) 공기업 혹은 대기업**과 기술력을 가진 **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**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마련

* 에너지 신산업 해외진출 지원 센터 설립 : 중소기업의 이력 관리 및 해외 매칭 지원

○ **(금융 지원)** 에너지 신산업 관련 **EDCF, ODA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*하고,**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**우대 금융서비스** 제공**

* 전체 양자간 ODA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규모는 약 1.65% 수준('13년)

**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'글로벌 전문기업'으로 지정하여 수출보증·보험 지원 한도 우대, 연대보증인 축소, 여신한도 확대 등 지원

□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협력 활성화

○ **(정상외교 후속)** 업무협약을 체결한 콜롬비아, 쿠웨이트와 **기술협력, 공동 실증사업 추진** 등 **실질적인 성과**를 내기 위한 과제 발굴

* 워킹그룹 구성·운영, 전기차 보급·에너지자립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추진 등

○ **(국제기금 활용)** 국내 신산업 모델을 **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소개**하고, **GCF, AIIB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토록 연계·지원**

* (예시) GCF 제안을 목표로 한-말레이시아 공동 타당성 조사 실시

< GCF 사업 모델(안) >

에너지 자립섬	친환경에너지타운
·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ESS를 이용한 청정에너지 전환	· 비위생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전기로 생산하여인근 도시에 공급
전기차	**스마트 팜**
· 전기차(전기버스, 전기택시), 충전인프라를 보급 등	· 현지의 딸기, 토마토 등에 적합한 온실 스마트팜 모델 구축

☞ **'에너지 신산업·신기술 육성전략'** 수립 ('15.下) 및 **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'** 제정(가칭) 추진

나.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부품·장비 수출 확대

❖ **해외 생산거점을 전략적으로 구축·활용**하여 수출경쟁력 강화

① **숙련 노동기반 생산거점**(베트남 등), **역내시장 진출거점**(멕시코, 슬로바키아) 등 **전략적으로 해외 생산거점을 구축**

② **국내**는 **핵심 소재·부품역량** 제고, **해외 생산거점은 저임·숙련 노동 활용**한 **非핵심소재·부품 조달** 등 **국내외 分業구조 최적화**

□ 해외 생산거점 진출기업 지원

○ **베트남(하노이) 해외공동물류센터*** **신규개소('16)** 및 **현지 A/S지원 강화**

* '15년 현재 해외공동물류센터 22개국, 43개소 구축(A/S기능은 9개센터)

○ **아세안 지역 등 해외공장 설립시 무역금융 확대**('14년 1.9조→ **'15년 4조**) 및 **지원조건 개선** ('15.下, 플랜트 기자재 수출 계약 전 先금융제공)

○ **베트남, 인도 등 주요 생산거점** 중심으로 **수출지원기관 배치 재조정**

* 지역별 기업지원 수요 등을 토대로, 수출지원기관 재배치 계획 확정('15. 下)

○ **멕시코 內 '금형 해외진출 지원센터'** 구축하여, **진출기업 장비·설비 지원**

□ 동반진출 확대, FTA활용 등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

○ **프로젝트별 '동반진출 협의회*'** 등을 통한 **중소 협력업체 동반진출 지원**

* 부지매입, 공장건설, 인허가, M&A, 현지 글로벌 업체로의 납품 확대 등 지원

○ FTA를 활용한 현지가공품 국내산 요건충족 등 중소기업 **교육·컨설팅**

○ **우즈벡*, 中美 6개국** 등 **역내 시장진출이 용이**한 거점국가(우즈벡→CIS, 중미 6개국→중남미)들과 **FTA를 우선적으로 추진**

* 한-우즈베키스탄 CEPA 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연구 추진 MOU 체결('15.6월)

□ 해외 진출기업과 글로벌 수요기업과 연계 강화

○ **글로벌 파트너링(GP)** 사업*을 **중국 등 거대 소비시장 중심으로 확대**

* 국내 유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 수요를 발굴 매칭, R&D 등 지원

구 분	'14년	'17년
유망 중소기업 DB	3,000개사 (자동차, 기계 등)	5,000개사 (항공, 전기차 등)
글로벌 수요기업	155개사	600개사
대상 지역	미, EU, 일 등 선진국	중국, 인도 등 신흥시장

3 수출지역 다변화 추진

❖ 중앙아, 이란, 러시아 등은 최근 **유가하락, 경제제재**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**수출이 위축되었으나, 향후 경기회복시 수출잠재력이 충분**

* 對러시아 수출금액 및 증감률(백만불,%) : ('14.1~5월)5,157→('15.1~5월)1,823(△64.6)
* 對UAE 수출금액 및 증감률(백만불,%) : ('14.1~5월)3,032→('15.1~5월)2,721(△10.2)

⇒ ① **무역금융 지원 강화**, ② **적극적 마케팅**, ③ **경제제재 완화 준비**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**신흥시장 점유율 조기 제고**

□ **(중동·중남미·중앙아) VIP 정상순방을 활용한 수출기회 창출**

○ 정상순방시 의제제기 등으로 지원한 **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실제 수주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관리**에 철저

* '15년 정상회담시 의제제기 또는 MOU 체결 등을 통해 866억불 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

- 자원관련 **Mega Project 발주에 대응**, 수주 **전담지원 조직 신설** (산업부, '15.下)

○ 기존 건설·플랜트 외에, **에너지신산업, 전자무역, 교통관리시스템, 사이버보안, 보건의료**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분야 진출을 확대하고

* '15.4 중남미 순방시 콜롬비아·브라질과 전자무역 협력 MOU 체결

- **중동 투자와 연계**한 **'제3국 공동진출' 방식 프로젝트** 추진 확대

* 한-사우디간·한-카타르간 제3국 공동진출 가능 프로젝트 리스트 상호교환

□ **(이란, 쿠바) 제재해제**시 우리기업 **지원체계를 미리 구축**하고,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**양국간 교류·협력 강화**

* (이란) 한-이란 경제협력 포럼('16.2월, 테헤란), 무역사절단 파견('15.11월) 등

○ 제재해제 단계별로 **수출 가이드라인*** **개정** 및 **유망품목 무역금융 지원 강화****(이란 자동차부품, 쿠바 소형가전 등)

*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(무협), 쿠바 시장진출 전략 마련(KOTRA)
** 무역보험 지원 : (이란) 중소기업 부보율 확대(80→90%), 대기업 인수재개
(쿠바) 지원한도 증액(€25백만→€60백만)

□ **(러시아, 아프리카) 수요 확대에 대비, 마케팅 및 시장정보 지원**

○ **(러시아)** 수입수요가 큰 **유망품목**을 중심으로 **마케팅 활동 강화**
○ **(아프리카) 소비재·기계·플랜트 마케팅 및 시장정보 제공 강화**

3.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
◇ 우리 주력산업은 **후발경쟁국과 기술격차 축소, 엔低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** 등으로 '新샌드위치' **상황**에 직면

○ 또한, 美·獨·中 **등 경쟁국**들은 **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강화**하고 있어, **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**한 시점

* 미국(Making in America, '14), 독일(Industry 4.0, '13), 중국(제조 2025, '15.6) 등 주요 경쟁국도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한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추진

◇ 앞으로 「**제조업 혁신 3.0 전략**」을 **산업 생태계 전반에 신속하게 확산**시켜, **우리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업그레이드**

① 특히, 현재 우리 **주력품목**의 **확고한 경쟁우위를 유지**하기 위해 **선제적인 대규모 민간투자 추진**('15~'16년 착수기준 91조원)

② **대대적 민관합동 R&D 투자**('15~'18, 약 6.8조원) 및 **IT융합 활성화**를 통해 **2~3년 후 주력산업 미래**를 책임질 **차세대 유망품목 육성**

③ **대형화**(규모의 경제 실현), **전문화**(글로벌 전문기업 도약), **신사업 진출**(고수익시장 선점) 등 주력산업의 **자발적 사업재편 촉진**

④ **중소·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, 주력산업 에너지 신산업 육성** 등 본격 추진

1 선제적 투자를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

❖ **민간의 적극적인 신규 설비투자**를 통해 현재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**주력품목의 경쟁우위를 보다 확고하게 유지**

□ **민간은 주력품목 경쟁력 제고**를 위해 **91조원 설비투자 착수 ('15~'16년)**

① **선제적 투자로 주력품목을 다변화**하고 시장주도적 지위 유지

업종	주요 분야별 투자 방향
디스플레이 · 반도체	○ **(디스플레이) OLED에 대한 선제적 투자**로 경쟁국과 기술격차를 확대하고, **LCD의 경우 8세대 투자** 확대 (차세대급 LCD 투자도 적극 검토) ○ **(반도체) 메모리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**로 세계시장 **선도적 지위 유지**

② **대형화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** 및 **고부가가치화 추진**

구분	주요 분야별 투자 방향
석유화학 · 정유 · 철강	○ **(범용제품)**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**설비투자**로 **가격경쟁력 제고** 및 **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** ○ **(고부가가치 제품)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반**을 선제적으로 조성

③ **생산성 향상 및 핵심부품 관련 투자**를 통한 경쟁력 유지

구분	주요 분야별 투자 방향
자동차 · 기타	○ **(자동차) 생산성 향상 및 핵심부품 생산시설 확충 등** ○ **(기타)** 기계, 전기전자, 항공 분야 **핵심부품 생산시설 투자 확대**

※ 투자 집계 기준

① **'15~'16년 착수**하는 주요 설비투자 프로젝트 (기업간 협의中 프로젝트 포함)

② **공장 신·증설(Green Field) 투자**만 포함 (단 자동차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 포함)

③ 「주요기업 투자간담회('15.2)」에서 집계된 '15년 착수 예정 투자계획(34.4조원) 포함

□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다각적인 지원 강구

○ **핵심장비·기자재·기초원자재 수입 등에 대한 관세 감면**

- '15년 하반기 중 **OLED 제조설비 할당관세를 지원**하고, **수요조사**를 거쳐 **추가적용 품목 검토**

* '15년 하반기 적용 : 증착기, 건식식각기, 이온주입기 등 4개 설비
* 수요조사 대상 품목 : 철강산업용 원자재 등

- **'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'** 관련, **중소·중견기업 지원특례를 1년 연장*('15 → '16)**하고, **적용품목 확대 추진**

* **'15년 한시적용 특례** : ①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율 확대 (30% → 50%)
② 중견기업도 감면적용 대상에 한시적 포함 (50% 감면)

○ **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을 활용**한 **민간투자 리스크 완화**

- 기업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기 위해 **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**(산업은행)**을 통한 설비 등 투자자금 우대지원***

* 정유·석유화학·조선업종 8개사 약 9.2조원 규모 투자 검토 중

- "**업종별 협·단체-산업은행간 투자협의체**"를 신설하여 신규투자 수요발굴, 산은 프로그램 투자 프로젝트 진행상황 점검 상시화

○ **입지·환경 등 규제완화 등 기업투자 애로 해소 지원**

☞ **주요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이행**될 수 있도록, 각 프로젝트별 **'일대일 전담지원관'**을 지정하여, 입지·환경 등 **기업투자의 걸림돌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밀착 지원**

2 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

❖ **대형화, 전문화, 신사업 진출** 등 **업종별 상황에 맞는 자발적 사업재편**을 통해 **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** 추진

□ 주요 업종별 기업 CEO가 참여하는 **'업종별 민간협의체'를 구성**하여 **민간주도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논의 착수**('15.下)

○ 사업재편 관련애로는 **산업부 등 관계부처 TF**를 통해 신속히 해소

□ **정부는**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**관련 애로 해소 및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추진**

○ 업종별 **맞춤형 애로해소** 추진

- **(석유화학)** 나프타 원료 공동구매시 저장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**석유공사의 부두·저장소**(대산·여수 등) **임대**

- **(조선)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***(1조원, '14.12월 조성)**를 적극 활용**하고 필요시 추가조성을 통해 **조선업계 단기 일감 제공**

  * 현대상선·대한해운 등 해운사의 벌크선 6척 구매 지원('15.3)을 통해 일감 제공

- **(자동차부품)** 친환경차 부품 등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**자동차부품전용산단**('16~'21, 96만㎡) **조성***

  *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(광주, 8,347억원)의 일환으로 현재 사업비 666억원에 대한 예타 진행 중

○ **자발적 사업재편 지원**을 위한 **법·제도적 기반 구축**

- **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기활법)***」(가칭) **연내제정** 추진

  * 조직재편절차 간소화, 지주회사 규제 유예 연장,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

- 同法에 따른 **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**으로 **일시적 유동성 압박 완화를 위한 과세이연, 과잉자산 처분시 세제특례** 등 지원

3 주력산업의 수출품목 고도화

❖ 대대적 **R&D 투자(민관 합동 6.8조원) 및 IT 융합 촉진** 등을 통해 **2~3년내 세계시장을 선도**할 수 있는 **차세대 유망품목 집중 육성**

□ 민간은 **OLED, 모바일 CPU 등 시장전망**이 밝고, **2~3년내 시장 선도 가능성**이 있는 **유망품목**에 **대한 대규모 R&D투자 추진**

구분	주력산업별 유망품목(예시)	수출(억불)	
		'14년	'18년(전망)
디스플레이	OLED	53	153
전자전기	리튬이차전지, SSD	50	92
반도체	모바일 CPU(AP)	14	50
조선해양플랜트	LNG 연료추진선 등 친환경선박, LNG화물창* * LNG운반선에 LNG를 저장하는 탱크	0	46
철강	셰일가스용강관, 고망간강	24	34
항공	항공기체 부품* * 민항기 동체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	16	27
자동차부품	IT 기반 안전·편의 시스템 (차간거리제어, 텔레매틱스 등)	10	24
신소재	폴리케톤, 사파이어 단결정, 이차전지 양극, 초고순도 SiC	0	17
석유화학	고기능성합성수지, 위생용품 흡수제, 수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	10	16
기계	제조용 로봇	6 ('13)	15
총계		183	474

※ 업종별 협·단체를 통해 차세대 유망품목별 수출목표 집계

□ **정부는 원천기술 개발, R&D 생태계 구축 등 민간 기술역량 강화 지원**

○ **민간 R&D를 촉진**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, 중소·중견기업 R&D생태계 구축 등 지원 ('15~'18, 민관 합동 6.8조원)

○ **R&D 관련 조세특례**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**일몰연장 여부 및 대상기술 재조정** 검토 (조특법)

○ 기업 핵심기술 및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**핵심연구인력 처우개선 유도***, **비밀유지의무 등을 포함한 '인력관리 가이드라인' 개발·보급**('15.下)

* 연구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'직무발명 보상제도' 문화 확산 등

○ **엔·유로화 약세를 활용,** 국내기업이 **유망·핵심기술 보유한 EU·日 기업들**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**지원**

* 유망 매물기업 정보제공 ('15년 450개사), 법률·회계 자문 등 M&A전문 서비스 지원, 旣 조성된 성장전략 M&A펀드 및 소재부품 M&A펀드 확대 등 검토

□ **혁신형 제품 초기수요 창출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**

○ **(협업플랫폼 마련) 전·후방산업간 협력위원회***를 구성('15.下)하여 교차 **구매 촉진, 이업종간 교류** 등 기업간 **협업과제 발굴, 지원방안 모색**

* 국내 글로벌 브랜드 전방업체(현대차, 삼성전자 등), 후방 소재·부품업체 등으로 구성

< '15년내 협업 성과창출 가능 사례 >

▪ **(조선 부품·소재)** ⅰ)LNG 운반선용 기자재(펌프 등): 가스공사-국내기업, ⅱ)LNG 선박 화물창용 고망간강 소재: 대우조선해양-포스코 ⇒ 하반기내 협의 완료

○ **(공공기관 선도적 구매)** 에너지 공기업 등 **공공기관**이 혁신형 제품 **등을 선도적으로 구입**하여, **초기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** 지원*

* 남부발전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중소형 발전소 관리 소프트웨어를 구매·실증하여 同소프트웨어 해외수출(60만불) 지원

□ **혁신적 IT융합제품 신속 출시를 위한 규제시스템 개선**

○ 기업이 **신사업 활동 착수 이전에 규제여부를 확인**하고, **창조적 규제대안을 제시**할 수 있도록 기존의 **획일적 규제방식을 개선**

- '**규제 그레이존 해소**' 및 '**기업 실증특례**' **제도**를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 **제정안에 반영** 추진

4 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의 확산

❖ 중소·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,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등 「제조업 혁신 3.0 전략」 확산

□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

○ **(보급계획)** 엔·유로화 약세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(자동차부품, 전자, 뿌리 등)의 **중소기업을 중심**으로 우선 보급(**하반기 900개 추가** 구축)

* 보급실적 및 목표(누적) : ('14) 300 ('15) 1,200 ('16) 2,800 ('17) 4,400 ('18) 6,000

< '15년 하반기 보급사업 추진내용 >

보급트랙	개별기업	업종*	창조경제혁신센터
보급수	550	250	100

* 전자(삼성, LG), 자동차(현대), 기계(두산) 등 10개 대기업 참여

- 공정효율화와 더불어 **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(FEMS) 등 에너지효율 설비도 추가**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추진

< 스마트공장 구축사례 : 새한진공열처리 >

▪ 열처리爐에 **지능형 계량기**를 설치하고 **생산전력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**(EMS), **생산관리시스템**(MES) 등 구축 → **중첩 운전 최소화 및 전력피크타임 운전 제어**

⇒ **전력사용량 약 5% 절감, 전기요금 30% 이상 절감 및 불량률 60% 감축**

○ **(투자재원)** 지역투자보조금('15년, 100억원) 등 **민관재원을 활용해 '15년 1,500억원*, '18년까지 총 8,000억원 이상****으로 투자규모 확대

* 정부(400억원), 대기업(100억원), 중소기업(500억원), 산업은행(500억원, 융자)
** '16년 이후 보급예산(산업부, '15년 40억) 증액 및 대기업 지원 확대

○ **(참여확산 유도)** 스마트공장 **설명회 개최 및 견학 프로그램** 운영(16회, 630개사 참여), **교육용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배포**(6월~) 등 추진

□ 엔지니어링·디자인·SW 등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

○ 소프트파워 전문기업을 육성(~'17, 200개사)하고, 중소기업의 소프트파워 활용을 위한 디지털디자인 SW 개발·보급(~'17, 2,000개)

○ 엔지니어링·디자인 역량 제고를 위한 「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 방안」 수립('15.하)

< 별지 >

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

반도체	▪ '14년 세계점유율(2위) : (美) 53% (韓) 17% (日) 12% ▪ '14년 수출 : (메모리) 340억불 / (시스템) 225억불

□ **(현황) 메모리분야**는 '02년 이후 **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**중이나, 향후 경쟁심화 우려

* 메모리 분야 수출전망(억불) : ('14) 340 → ('15) 354 → ('16) 366

○ **시스템반도체**는 삼성의 자체기기 탑재 등으로 상승세인 **AP를 제외**하고, **센서·임베디드SW** 등 대부분 분야가 **美·EU 대비 열위**

* 시스템 분야 수출전망(억불) : ('14) 225 → ('15) 236 → ('16) 253

□ **(대책) 메모리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**를 통해 **세계 1위를 확고히** 하고, **시스템반도체**는 **우수인력 양성** 등을 통해 **세계 3위 도약** 추진

○ **(메모리)** 입지애로 해소 등을 통해 **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**하고, 처우 개선 등을 통해 **핵심기술 인력 확보**

* (민간) 자체 인력유출 방지대책, (정부) 기술유출 방지 유관기관 공조·대응

○ **(시스템)** 시장 성장성이 큰 **모바일 CPU*를 수출유망품목**으로 집중 육성하고, **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설계인력 양성** 등 성장기반 확충

* AP(Application Processor) : 스마트폰·태블릿內 프로그램 구동, 그래픽 처리 등 담당, 자율주행차, IoT, 웨어러블 등 수요확대 전망 → '18년에는 年 50억불 이상 수출 잠재력

- **출연연 연구원의 산업계 진출**을 유도하고, 신규 R&D **과제 수행시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 활용** 추진

○ **(중간재·장비) 장비기업 M&A**를 통해 전문화·대형화 추진

디스플레이	▪ ’14년 세계시장 점유율(1위) : (LCD) 39% / (OLED) 95% ▪ ’14년 수출 : (LCD) 256억불 / (OLED) 53억불

□ **(현황) LCD·OLED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**중이나, **LCD 시장 정체** 및 **中·日의 추격***으로 경쟁 심화

* (中) LCD 생산라인 400억위안 투자계획, (日) 중형 패널분야 약 800억원 투자 예정
* 대형패널 점유율(’11→’14, %) : (韓) 53 → 48, (中) 3 → 11

○ 우리 기업의 **LCD패널 해외 생산비중 증가**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

* LCD패널 중국 생산비중(%) : (’13) 0.3 → (’14) 4.7 → (’15) 9.7 → (’16) 13.2

○ 우리나라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**OLED의 수요 확대**가 예상되며, 이에 따라 시장 **주도권 쟁탈을 위한 추격**도 가속화

* OLED 시장 현황·전망(억불) : (’14) 101 → (’15) 121 → (’16) 131 → (’17) 139
* (中) 금년내 생산라인 가동 추진 및 R&D투자 가속화, (日) 전문업체 JOLED 설립(’15.1)

□ **(대책) 투자 및 제도개선** 등을 통해 **세계 1위 경쟁력 유지**

○ **(LCD) 8세대급 LCD 설비투자 확대**, 민관합동 10세대 LCD 투자 방안 논의 등을 통해 **LCD 분야 경쟁우위** 지속 유지

- 대면적화, 고해상도화 달성을 위한 **고부가 기술개발을 가속화**하고, 장비개발을 통한 **공정·운영 효율화** 추진

○ **(OLED) 선제적 투자 및 초기시장 창출** 등을 통해 수출 유망품목으로 육성하여 **경쟁국과 격차 확대**

* ’18년 수출 목표 : 153억불 (’14년 대비 2.9배 증가)

- 국내 조달이 어려운 **제조설비 및 기자재***에 대한 **할당관세 지원**

* 제조용 증착기, 건식식각기, PECVD, 이온주입기 등

-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**OLED 차세대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**, 해당 응용제품의 세계 최초 상용화 및 **시장 활성화 지원**

석유화학	▪ '14년 세계시장 점유율(5위) : (美) 17.4% (中) 14.4% (사우디) 9.5% (韓) 5.2% (日) 4.6% ▪ '14년 수출 : 483억불

□ **(현황)** 최대시장 **중국의 자급률 상승**('12, 72% → '14, 82%), **美·中東 공급증대, 저유가에 따른 수출단가 급락**(전년비 △22.5%) 등으로 **수출부진 심화**

* 각국의 설비투자로 총생산 가능한 에틸렌 규모('10~'20년, 5,053만톤) 중 국가별 비중 : (中) 30%, (美) 22%, (사우디·인도) 14%

* 전년대비 수출단가 증감률 : (석유화학) △22.5% (석유제품) 41%

* 對中 석유화학 수출증가율(%) : ('11) 26.9 → ('12) △1.6 → ('13) 8.1 → ('14) △5.5

○ 미·EU 등 **선진국 경기회복**에 따라 **세계 수요는 개선**될 것으로 전망되나, **범용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로는 지속적 성장에 애로**

- **저유가 기조 지속**에 따른 부정적 영향과 셰일·천연가스 등 **저가 원료 기반 경쟁제품 공급 확대***로 우리나라 시장점유 축소** 우려

* 에틸렌 생산원가($/톤) : (韓, 나프타)1,100, (美, 셰일가스)600, (중동, 천연가스)200

** 세계시장점유율(%) : ('12) 5.6 → ('13) 5.3 → ('14) 5.4

□ **(대책)**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등 **대규모 설비투자와 사업재편**을 통한 **대형화·전문화**를 추진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

○ **나프타 원료 공동구매***와 **할당관세 적용** 등으로 **원가절감** 추진

* 공동구매에 따른 저장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석유공사의 부두·저장소 임대 지원

○ **해외기업 인수·합작, R&D 지원 확대** 및 설비확충 등으로 **수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등 고부가 제품시장 진출** 기반 마련

철강	▪ ’14년 세계시장 점유율(5위, 조강 기준) : (中) 49.4% (日) 6.6% (美) 5.3% (印) 5.2% (韓) 4.3% ▪ ’14년 수출 : 299억불

□ **(현황)** 세계시장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**중국 수요부진과 韓中日 3국의 설비과잉이 지속**

* 과잉설비 규모(조강 생산능력-조강수요, 100만톤) : (韓) 27 (中) 231 (日) 62

○ **품질은 對日 열위, 가격은 對中 열위**인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추격과 低價수출 등으로 **對中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**

* 철강교역 적자 추이(’13→’14, 억불) : (韓-日) 35.5 → 31 (韓-中) 33.5 → 51

○ **원료**(철광석, 유연탄 등) **가격 하락**과 저유가에 따른 **수출단가 하락**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

* 열연강판 수출 단가(US$/톤) : (’12) 598 → (’13) 566 → (’14) 546 → (’15f) 450

□ **(대책) 사업재편을 통해 전문화·효율화**를 도모하고 **고부가 수출유망품목**을 육성, 원가절감 및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

○ 셰일가스용 강관, 망가니즈스틸, 타이타늄 등 **고부가가치 수출유망 품목 육성을 위해 R&D 투자 확대 및 사업화기반 구축** 지원

- 기술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**국내·해외기업 M&A** 추진

○ 수요조사를 거쳐 **핵심 副원료 수입시 할당관세 적용** 확대 검토

○ 아울러, 타국의 **수입규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사전에 예방**하고, **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**

* 우리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건수 : (~’11) 32건 → (’12~’15) 42건

조선해양	▪ '14년 세계점유율(1위, 건조기준) : (韓) 40% (中) 27% (日) 13% ▪ '14년 수출 : 399억불

□ **(현황) 세계 수주량 감소** 속에, **중국의 고부가선 진입 및 저가 공세, 일본의 성공적 구조조정** 등으로 우리 **주력선종 분야 경쟁 심화**

* '14년 수주량은 12.6백만 CGT(표준화물선환산톤수)로 전년대비 33% 감소

* 韓中日 경쟁력 비교(韓/中/日, 산업硏) : (기술) 95/85/95 (가격) 90/100/95

○ **'14년 이전에 수주받은 선박**과 **고가 해양플랜트 인도**로 인해 **'15년 하반기까지 외형적 수출은 양호**할 전망이나,

- **'14년 이후의 글로벌 발주 부진 및 공급과잉 심화**에 따른 수주하락으로 **'16년 이후 수출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**

* (offshore) 저유가에 따른 글로벌 시황침체 (상선·LNG) 공급과잉, 글로벌 경기부진

○ **엔저 지속** 및 최근 **유로화 약세** 등에 따라 수출가격 경쟁력도 약화

□ **(대책) 고부가가치 유망품목 육성**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및 **업계의 단기 일감부족 애로** 해소

○ **조선소-기자재업체간 협력, 핵심기술 조기개발** 등을 통해 **친환경선박, LNG화물창** 등 고부가 품목을 **수출 주력선종으로 조기 육성**

- **전-후방 산업간 협력위원회**를 구성하여 혁신형 품목의 **수요 조기 창출**을 위한 **신소재·부품 개발 기업과 수요기업간 협업**을 추진

* 例示 : (LNG 운반선용 기자재) 가스공사-국내기업, (LNG 화물창용 소재) 대우조선-포스코

○ **에코쉽 프로젝트 펀드**(1조원)를 활용한 **단기 일감 마련**, 조선소의 **방사선 투과검사 규제 이행역량 강화** 등 업계의 단기애로 해소

자동차(부품)	▪ ’14년 완성차 생산량 순위(5위, 단위 : 만대) : (中) 2,372 (美) 1,165 (日) 977 (獨) 592 (韓) 452 ▪ ’14년 수출 : (완성차) 489억불 / (부품) 266억불

□ **(현황)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급성장**해 왔으나, 최근 **신흥국의 수요 위축, 엔·유로 약세** 등으로 **수출 경합 심화**

* 자동차 수출물량 증감율(’14→’15.1Q, %) : (韓) △0.1→△6.0, (日) △1.1→3.8

○ 국내 업체들의 **해외 현지화 전략**으로 완성차 업체 및 동반진출한 부품 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확대된 반면, **국내 생산·수출 정체**

* 완성차 생산대수(만대, ’14) : (국내) 452(51%), (해외) 441(49%)
* 완성차 해외생산 전망(만대) : (’04) 41 → (’14) 452 → (’17) 554

○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**친환경·스마트자동차 분야는 후발 주자**

* 친환경차 시장점유율(%, ’13) : (도요타) 71.6, (혼다) 9.7, (현대·기아) 3.8
* 스마트차 특허건수(’02~’13) : (혼다) 454, (벤츠) 191, (현대·기아) 53

○ **자동차 부품 업체의 매출**은 주로 **국내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 공급 중심(68%)**이며, 수출(28%), A/S부품(4%) 등으로 구성

* 국가별 자동차부품 수출 순위 : ①독일, ②미국, ③일본, ④한국, ⑤중국 순

□ **(대책) 대규모 R&D·신차개발 등을 통해 핵심 역량을 강화**하고, **해외 M&A·부품 직수출** 등 **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**

○ 생산성 향상 및 신차 생산을 위한 **설비투자**, SUV 등 **유망 신차 개발 및 핵심기술*** **R&D**를 통한 완성차의 경쟁력 제고

* (자율주행차) 주행환경인지, 판단, 제어 등 / (친환경차) 주행거리, 효율, 경량화 등

○ **자율주행자동차 실증지구** 등 **제도 개선**, 자율주행차·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**기술개발** 등 **조기 상용화 지원**

○ IT융합 부품 육성을 위한 중소부품업체와 IT·SW업체간 **제휴·합작** 및 **해외 부품업체 M&A 활성화** 등을 통한 **글로벌 부품업체 육성**

○ FTA활용 극대화를 위해 **수출연계형 R&D**, **해외 업체로의 부품 직수출 매칭** 등 판로 개척 지원

기계	▪ '14년 일반기계 세계점유율(8위) : (獨) 15.4% (中) 11.5% (美) 11.5% (日) 8.3% (伊) 6.8% (英) 4.4% (佛) 4.2% (韓) 3.2% ▪ '14년 일반기계 수출 : 483.5억불

□ **(현황)**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**중국의 기계수요 둔화, 엔·유로화 약세, 가격경쟁력 약화** 등으로 **일반기계의 수출 둔화**

* 기계수출증가율('15.1~6, 전년동기대비): 0.8% * 對中수출증가율 : △8.3%
* 일반기계 수출물량증감율('14→'15.1Q, %) : (韓) 4.7 → 2.5, (日) 2.9 → 2.9

○ 다만, **미국의 수요 회복**, 현지투자와 병행한 베트남 등 **아세안 수출 확대**는 기계 수출에 다소 긍정적

○ 경쟁력 차원에서는 **세계시장 선도품목이 부재**하고 **선진업체 대비 기업규모가 영세**하며,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

* 기계분야 국가별 1위 품목수 : (獨) 37, (中) 18, (日) 12, (韓) 1
* 국내 공작기계의 매출은 지멘스 등 글로벌 업체의 10~20% 수준
* 센양SMTLC(공작기계 세계1위), 대련기계(공기 5위), 싼이중공(건설기계 5위), 중롄중공(건기 6위) 등 중국내 대형 기계기업 등장

□ **(대책)** 스마트공장 활용, 첨단소재 가공 등 **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전환**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**유망 수출시장 개척 지원**

○ 스마트공장 구현용 기계·로봇, 첨단소재가공시스템, 고효율 에너지 기기 등 **고부가가치 제품 기술개발** 지원으로 **내수시장 창출** 및 **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**

* 제조용 로봇 : '18년에는 '13년(6억불) 대비 2.5배 증가한 15억불 수출 전망

-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**공공/민간수요*** **활용** 및 인센티브 **제도 개선****을 통해 내수시장 창출 및 수출 Reference 구축

* (재난대응건설기계) 지자체·공기업·안전처 등 (기계시스템) 국방·항공분야 등
** 에너지기기 효율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신제품 시장 형성을 유도

○ 동남아 등 글로벌 생산거점 변화에 대응하여 **대기업 현지투자와 연계한 기계·장비 동반진출** 유도

- 산업기술협력사업을 통해 한국산 기계활용 저변 확대 및 금융·AS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**지역별 수출거점 확보**

* 제조업체-금융사 연계 진출, 현지 유통망 및 A/S 네트워크 구축 등

전자전기	▪ '14년 세계점유율(1위) : (스마트폰) 29% (TV) 44% (이차전지) 47% ▪ '14년 수출 : (휴대폰) 262억불 / (가전) 148억불

□ **(현황)** 휴대폰, TV, 이차전지 등 **주력품목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***중이나,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**해외 현지생산 확대** 등으로 수출 감소

* 세계시장점유율(%) : [TV] ('13) 41.9 → ('14) 44.1, [스마트폰] ('14.4Q) 23.7 → ('15.1Q) 28.4, [이차전지] ('13) 42.1 → ('14) 46.5

* 해외생산비중('14) : (TV) 97.4%, (휴대폰) 81.2%, (태블릿PC) 94.1%

- 시장 성숙으로 인한 **성장 정체** 및 **후발경쟁국 추격**, TV 등 주요 품목의 **핵심부품·완제품 단가 동반하락**도 수출에 부정적

* 中 스마트폰시장 점유율(%, '14→'15.1Q, SA) : (韓) 14 → 10.1, (中) 66.7 → 66.7

○ **가전**(성장률 7.2→△0.9%), **스마트폰**(27→13%) 등은 전년대비 **성장이 둔화**되는 가운데, **이차전지, 의료기기** 등은 세계수요 확대로 **큰폭 성장** 예상

□ **(대책) 이차전지·중소가전** 등 유망품목은 **R&D 투자 강화, 업계 협업**을 통해 경쟁력 강화하고, **FTA를 활용**한 부품수출 확대 도모

○ 대중소 협업을 통해 **IoT 융합 중소가전**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, **해외 홈쇼핑·온라인 유통 등 수출마케팅*** 지원

* TV홈쇼핑('13년 MOU 체결), 알리바바(中)·아마존(美) 등 글로벌 유통망 연계('15~) 추진

○ 중대형 **이차전지**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**원천기술 투자 확대, 수요기업 연계 공동 R&D*** **및 시장창출** 추진

* 전지+전기차, 전지+ESS 기업 간 공동 기술개발 협의체 구성

- 수요조사를 거쳐 **핵심장비 수입 등에 대한 관세감면** 검토

○ 한·베, 한·중 FTA 활용을 통한 **해외 현지공장向 부품 수출 확대**

* 한·중 FTA 협상결과: 카메라모듈(휴대폰부품, 35%, 20년철폐) TV부품(0-15%, 즉시-양허제외), 냉장고부품(10%, 5-10년철폐), 세탁기부품(5-16%, 10-15년철폐)

섬유	▪ '14년 섬유·의류 세계점유율(8위, %) : (中) 41.3 (EU) 24.8 (印) 4.7 (터키) 3.6 (방글라데시) 3.3 (베트남) 2.9 (美) 2.6 (韓) 1.8 ▪ '14년 수출 : 159억불

□ **(현황) 글로벌 수요 부진,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경쟁력**,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우리 **범용제품 경쟁력 지속 하락**

○ 중국의 세계시장 지배력이 절대적, **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**('14년 1.8%)**은 하락세**이며 '15년 1~4월 수출(47억불, △9.6%)도 부진

- **해외 현지생산 비중이 지속 확대**되는 가운데,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**해외 공장의 국산소재 조달률**도 감소

* 섬유산업 해외투자규모(~'14년) : 73.3억불, 5,495개 법인

○ 소득수준 향상과 산업 용도 활용 증가에 따라 **화학섬유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** 전망

* 화학섬유 세계수요 현황·전망(백만톤) : ('10) 46.0 → ('15) 56.4 → ('20) 64.3 → ('30) 86.2

□ **(대책) 생산성을 제고**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, **R&D 및 마케팅 지원**을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확대

○ **노후설비 교체 및 공정 스마트화*** 등으로 생산공정을 효율화하고, **물 없는 염색** 등 첨단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

* ICT 융합을 통한 봉제공정 효율화 : 기존 수작업에 의한 옷본 만들기, 마킹, 재단 등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, 온라인을 통해 레이저 재단까지 자동화

○ 전략적 R&D를 통해 **탄소·아라미드 섬유 등 유망품목을 육성**하고, 섬유스트림간 협력을 통한 **상생협력 R&D 확대 추진**

○ **K-Fashion 프로젝트** 등 중국 내수시장 진출 맞춤형 전략 추진

- **수출상담회*** 참여 지원 및 **알리바바** B2B 쇼핑몰에 **한국패션관 신설**('15.7월)

* 코리아 브랜드 한류상품 박람회(8월, 상하이), K-goods Fair(하반기, 中선전·텐진) 등